

살모넬라성(Salmonellosis) 설사병의 증상 및 예방요령

1. 살모넬라의 특징

살 모넬라의 발병 시기는 여름철에 육성, 비육돈에서 다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비육초기에 발병하여 양돈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발병 일령 : 70일령 이상

발병 체중 : 30kg 이상

전파 양상 : 갑자기 돈군에서 4~5두가 설사를 시작하여 3~4일 사이에 같은 돈사의 전 돈군으로 확산하여 설사를 함

분변 : 약간 노란색 또는 흑색 점액성 설사

증상 : 설사를 1일 정도 한 개체는 복부가 함몰되면서 심한 탈수와 함께 거동이 불완전하며. 과행, 피부는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폐사가 됨. 귀, 복부, 다리, 피부 연한곳에 선홍색 반점에서 자색으로 변함.

부검 소견 : 소장, 대장의 충, 출혈 특히 대장 점막의 점상의 출혈소가 있음. 비장의 경색, 간장의 좁쌀만한 흰색 괴사반점. 방광의 충혈 신장의 점상출혈

진단 : 장내에서 살모넬라균 분리

감수성약제 : 아목사실린제제

예방 및 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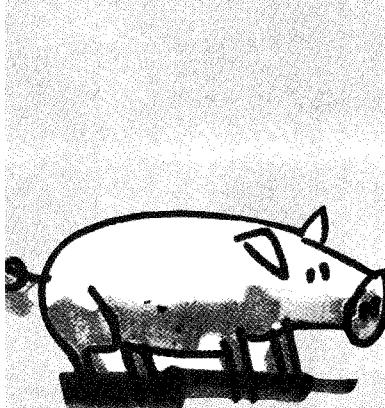
발병 돈사는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주며 치료 후 타돈사에 들어갈 때 장화나 작업복을 갈아입고 출입 할 것.

사료 빈을 1주일에 1회정도 비운다음 완전히 청소 후 사료를 입고한다.

돈사내 사료 통을 청결하게 관리해준다. 대부분 사료통에서 사료가 채화되어 사료가 부패되는 경우에 살모넬라균이 증식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료통 관리를 청결하게 관리 해 준다.

조기 발견하여 감수성 약제로 3회 치료시 매우 양호함.

유기산제제를 사료에 첨가.(요즘은 기호성이 좋은 유기산제제가 시판되므로 사료 섭취량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첨가가 용이하다)



살모넬라의 발병 시기는 여름철에 육성, 비육돈에서
다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비육초기에 발병하여
양돈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살모넬라 증세로 어원 돼지



▲ 귀부분과 주둥이에 피부변색이 일어난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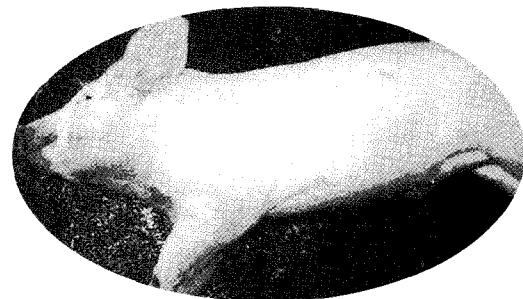
2. 살모넬라의 교과서적 특징

1) 원인균 - *Salmonella cholerae suis*

2) 발생

① 돈콜레라와 복합감염 예가 많음.

② 2~4개월령에 다발.



▲ 귀부분에 자주빛 변색이 일어난 돼지

3) 전파 경로

① 오염된 사료, 물 → 경구 감염.

② Stress(이동, 기온급변) → 보균돈 → 균배설
→ 농장, 돈군오염.

① 어린돼지 다발 - 수양성 설사.

② 폐렴 증상, 신경 증상, 피부 변색.

(3) 만성 장염형

① 지속적 설사.

② 설사변, 장점막 상피세포의 괴사변, 간혹 혈변.

4) 증상

5) 치료 및 예방

(1) 급성 패혈증

① 패혈증이 특징 - 어린 돼지 다발.

② 체온상승, 호흡促박, 24~48시간내 폐사.

③ 귀, 복부, 다리, 피부 연한곳에 선홍색 반점 →
자색으로 변함.

④ 간 - 좁쌀만한 흰색 괴사반점.

① 보균돈의 검색 · 도태(분변검사)

② 사료, 물, 돈사 위생관리.

③ 발병돈과 주변 돈군 전체 - 감수성 항생제 주사 및 유기산제제 첨가.

④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⑤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준다. **양돈**

〈자료제공 : 이오형 양돈전문컨설팅〉

(2) 급성 장염형